

『가장 푸른 눈』: 불안과 장애 그리고 욕망 이야기

변 효 정
(대진대학교)

Byun, Hyojeong. “A Story of Anxiety, Disorder, and Desire in *The Bluest Ey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1 (2019): 65-84. This novel is full of images of beauty icons for the whiteness,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olences, desire to be a whole person as a black, and so on. With Pecola's pursuing her own dream,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meaning of her phantom self through the soul-destroying process based on her black surroundings. She is destined to lead a life of humiliation due to her blackness, so she is constantly victimized and humiliated in the family and the community. It means that the caste hierarchy of the black society can be atrocious because it stems from the White standard that makes the blacks invisible and urges them to such extremes. As the whiteness functions as the yardstick of personal worth in the work, it pushes Pecola into not only anxiety and disorder, but also distorted desire. For the reason, she is psychologically deserted by her parents and the community, and further her earnest desire for the blue eye makes her insane after all. However, while showing these severe processes in the racist society, the study consequently emphasizes Toni Morrison's messages of understanding and love that make readers look into our severe society. (Daejin University)

Key Words: blackness, anxiety, disorder, distorted desire, Toni Morrison's messages

I. 들어가며

심리학에서 ‘개인화 요구’란 “일회적인 하나의 존재, 개인이 되려는 요구”(리만 18-9)를 의미하는데 이는 계속되는 불안의 심리 상태 속에서 하나의 특정한 불안이 거듭 변형되어 표면화 되는 불안의 악순환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불안 중에서 가장 강도가 센 것은 한 사람이 어린 시절 방어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험한

불안이 그의 인생에 평생 활성화되어 발달장애 혹은 정체, 퇴행 증상 등을 발현하는 것이다. 이때 불안 체험의 당사자는 거듭 ‘불안한 불안’을 경험하며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불안을 가짐으로써 심리요법에 의존한다든지 불안을 견디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에 의지, 체념과 같은 도피의 대응 방식을 실천하며 불안의 객체로서 무력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이 적체되면 귀속적인 사고에서 기인하는 병리적인 증상 및 장애로까지 발전될 수 있어 불안 당사자의 삶은 파괴될 수 있다.

모리슨(Toni Morrison)은 백인 중심 사회에서 흑인들의 삶과 그들의 현실을 더욱 상세히 그려내고자 자신의 첫 작품인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 1970)을 집필하였다. 그녀는 이 소설의 배경에 대해 “나는 내가 읽고 싶었던 종류의 책을 쓰길 원했다”(Bakerman 59)고 밝힌 바 있다. 이 작품이 출간되던 시기는 모리슨이 여성 해방 운동인 우먼 리브(Women's Lib)에서 흑인 여성들의 역할을 정의하던 때였기에 이 소설 속 주인공에 대한 의미 해석에는 어떤 식으로든 흑인을 주제로 읊기려는 모리슨의 전략이 숨어 있다. 란드(Naomi R. Rand)는 이 작품을 “백인 성상연구(iconography)의 영향력에 관한 소설”(41)이라 언급하며 백인 세계가 흑인 세계를 에워싸고 멀리서 그들의 뜻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흑인들을 끊임없이 배제하는 단일한 미적 기준의 일환인 푸른 눈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는 백인들을 위한 “특별한 화장품 브랜드 산업마저 번창하였다”(Elias 8)는 점과 그들의 금발과 경제적인 특권을 감안할 때 이는 모두 흑인 인권 운동(Black Pride Movement)의 자극제가 된다. 이에 모리슨의 이 작품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운동과 맞물려 흑인들의 삶을 조명하되 주요 인물들인 출리(Cholly Breedlove)와 폴린(Pauline) 그리고 주인공 피콜라(Pecola)의 불안과 여기서 기인하는 장애 및 욕망의 전개에 주목하게 한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변화를 보이는 노예제의 형태와 매우 깊게 관련되어 있다”(Fick 28)는 언급처럼 주요 인물들이 백인 중심 사회에서 불안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흑인성(Blackness)으로 인해 정서적 경계인의 모습을 띤다. 이들은 국외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온전한 불안과 위험한 운명에 처해 존재와 현존의 위협 및 존엄성의 손상을 쉽게 경험한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피콜라 또한 안전한 집과 정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버지 출리와 자신과는 눈도 맞추지 않는 어머니

폴린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 속에서 성장하며 흑인이 삶과 사회 속에서 ‘하나의 존재’가 되는 일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 소설은 피콜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콜라에 대한 이미지이다”(David 33)는 평처럼 인간적인 실존을 위협받은 흑인 십대 소녀 피콜라의 외상과 분열 과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오히려 그녀의 성장에 독이 되는 가정 속에서 출리와 폴린이 추구하는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가 아닌 백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왜곡된 상위 욕구를 지향하다 결국 정신적으로 마비되며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산다. 이는 백인 사회가 조장하는 욕망의 무한성이라는 덫에 빠진 피콜라가 욕망의 대상을 거부의 대상으로 환원할 줄 아는 화자 클라우디아(Claudia MacTeer)¹와는 달리 집단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푸른 눈을 끊임없이 욕망하며 자신의 최소한의 방어권마저도 갖지 못한 삶을 산 결과이다. 이 작품에서 궁극적으로 “피콜라의 눈/자이는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지배 문화에 속한 것”(Malmgren 154)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흑인의 분열된 충동과 종속적인 퇴행을 각각의 인물들이 보이는 불안과 장애와 욕망의 이야기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논자는 반사회적인 인물들, 정신병자, 과도하게 예민한 주변인들과 그들에 둘러싸여 있는 주인공 피콜라를 중심으로 불안한 사회와 분열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병리적으로 발전하는지의 과정을 살피도록 한다. 본 논문은 흑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백인의 가치 기준으로 인해 존재감 없는 존재로 간주되는 주인공 피콜라를 리만의 ‘불안의 심리’를 통해 조명하되 이를 통해 모리슨이 흑인 사회에 남기는 유산과 가정 내 아동 학대와 범죄가 꾸준히 회자되는 현대 우리 사회가 반추해 보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찰해 보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모리슨이 불안이 존재하는 흑인 사회가 가진 가능성과 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전하는 그녀의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¹ 클라우디아는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피콜라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인물로 피콜라가 출리의 아기를 가졌을 때 로레인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피콜라의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기도한다. 클라우디아는 피콜라의 아기가 무사히 살기를 바라며 자전거를 살 돈을 포기하고 그 돈을 땅에 묻는 결단력을 보이는 인물이다.

II. 불안과 장애 이야기

클라우디아의 독백으로 전개되는 본 작품에서 그녀는 “우리의 병은 모욕감과 구역질나는 검은 물약과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피마자유로 치료될 뿐”(10)² 이라고 단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정서치료의 어려움을 예견한다. 아울러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74)라고 말하는 화자 클라우디아의 물음은 끊임 없이 이 작품 속 인물들의 내재적 결핍에 집중하게 한다.

출리는 어린 피콜라가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성장하게 하는 최상위 인물이자 그녀의 결핍의 근원과도 같은 존재이다. 가족의 불행의 근간인 출리는 타자를 자신에게 종속시켜 바라보는 ‘상실 불안’을 가지고 있다. 그는 태어난 지 겨우 나흘째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철도 옆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후 고모 할머니인 지미(Jimmy)의 보살핌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지만 그녀마저 세상을 뜨자 망연해진다. 이때 상실감을 달래고자 출리는 그녀의 장례식을 치른 후 숲 속에서 사촌인 달린(Darlene)과 즉흥적으로 성행위를 한다. 이는 “되도록 큰 가까움과 애착을 찾는다는 상실 불안자”(리만 102)의 특성으로 그가 자신의 버팀목이 없어진 상황에서 외부에서 자신을 지탱시켜 줄 강한 자아를 찾고 싶은 마음이 투영된 행위이다. 이처럼 상실 불안은 “분리, 안정감 상실과 고독,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리만 102)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런 달콤한 경험은 백인 사냥꾼들의 조롱에 의해 한 순간 수치스러운 행위로 전락해 버린다. 백인들은 무방비 상태의 두 사람을 노리게로 삼아 흡사 천식 환자가 내뿜는 기침 소리 같은 비웃음을 흘리며 그들을 겨냥해 손전등을 무대 위의 조명처럼 비춘다. 그리고 이 순간 출리는 절대적인 무력 상태를 처절히 경험하게 되고 “그의 성장은 그때 거기서 멈춰버린다”(Sharma 64). 이렇게 백인들이 비추는 손전등으로 인해 플래쉬 빛이 장 속으로까지 기어들어 오는 비참한 기분을 느꼈던 출리는 자신의 전 삶이 망가진 채 “분열의 상징”(Rice 26)이 되어버린다. 게다가 “남성이 오르가슴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성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 불안 신경증이 생기기 쉽기에”(살레츨 45) 이때 출리의

² 이후 『가장 푸른 눈』의 인용 내용은 페이지 숫자만 표기함

불안은 존재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이중으로 강력하게 형성되어 버린다. 이후 출리는 중증 분열 환자처럼 자신의 불가침성의 위협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자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불안을 다스리지만 작품 내내 불안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은 어느 날 출리가 교회 소풍에서 수박을 박살내는 남자를 바라보며 자신만의 신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에서도 조명된다. 출리의 신은 예측이 불가능한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의 불안을 비춘다.

세상을 손에 쥐고 땅으로 돌진할 준비를 하는 것, 붉은 내장을 흘려보내서 흑인들이 그 달콤하고 따뜻한 내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악마임이 분명하다. 만약 이 악마가 그러하다면, 출리는 그를 더 좋아했겠지. 그는 신에 대해 생각한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악마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신이 났다.

It must be the devil who looks like that—holding the world in his hands, ready to dash it to the ground and spill the red guts so niggers could eat the sweet, warm insides. If the devil did look like that, Cholly preferred him. He never felt anything thinking about God, but just the idea of the devil excited him. (134)

출리의 불안의 근원을 더 살펴보면 그가 14살이 되었을 때 자신을 버린 아버지 풀러(Samson Fuller)를 찾아간 경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출리에게 동네 사람인 잭(Blue Jack)이 대리부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출리는 자신을 아들이 아닌지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카드 게임에 빠져 있는 진짜 아버지에게서 상처를 받는다. 이전에도 풀러는 출리를 자신이 빚진 돈을 충당할 수 있는 대체물로만 여겼을 뿐 아버지로서의 정을 보여준 적이 없는 인물인데다가 이렇게 외면까지 당하니 어린 시절부터 출리는 냉동 보존 기억이라 불리는 트라우마의 덩어리 속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이후 출리는 자신의 실존을 스스로 지탱시켜주는 주체적인 인물로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의존적인 자세로 위태로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그는 타인의 시선이 싫어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몸에 다수의 멍 자국을 일부러 만드는 거친 생활을 하는가 하면

급기야 세 명의 백인 남성을 죽이고 죄수로 복역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여자 저 여자를 전전하면서 몇 년 동안 이방인처럼 지내다 아내인 폴린을 만난다.

출리가 가진 불안은 특히 “꿈속에서 그는 자신의 남성이 긴 히코리 지팡이로 변하여 엠디어(M'Dear)가 쓰다듬는 꿈을 꾸었다”(139)는 대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남성성에 대한 것이다. 이는 “인생에서 쾌락, 특히 성적 쾌락을 경험하는 능력의 상실인 아파나시스(aphanasis)에 대한 두려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살레츨 51)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출리의 적체된 불안과 화는 자신의 딸인 피콜라를 범하는 행동으로까지 진행된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향 같은 느낌을 주는 딸 피콜라에게 자신만의 왜곡된 사랑을 분출하고 싶어 한다. 사회적으로는 딸을 범한 폐륜적인 아버지이지만 자꾸만 옛 기억이 플래시백 되는 만성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기억을 잃어가는 출리의 정신 상태에서 보면 순간 고향 같은 안정감을 주던 피콜라의 뒷모습은 유일하게 그의 안식처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더군다나 이 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것을 구하는 부엌에서 일어난 강간이라는 점은 출리의 처절한 마지막 생리적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출리와 같이 분열적인 사람의 언어는 일반적으로 공격성으로 점철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피콜라에 대한 출리의 몸짓은 사랑의 일환으로도 읽힐 수 있다. 리만 또한 분열적인 사람과의 교류에서 중요한 것으로 “그들에게는 공격이 구애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55)는 점을 든다. 이는 공격을 구애의 형식인 접촉의 시작으로 보는 까닭이다. 이와 함께 출리의 성(family name)인 브리들러브가 가진 이중적 의미에 천착한 픽(Thomas H. Fick)의 견해에 따르면 그의 이러한 행위는 미움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에 붙잡힌 것으로 “그의 이름처럼 적어도 그에게는 이 두 용어가 결합할 수 없는 모순”(30)이기에 비극으로 치닫는 것이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어머니인 폴린도 아니고 출리만이 피콜라에게 자식에 대한 신체 접촉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불행한 타당성”(Bloom 2)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전의 “그의 남성 상실의 경험이 그가 사는 동안 내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Rand 45) 이 일은 다시금 출리가 달린과의 첫 경험에서 느꼈던 무력감과 불행의 연장선상으로 옮겨가는 사건이 되어 현실에서는 명백히 불행한 사건임을 증명한다. 이와 함께 “윤리와 도덕은 정신 분열증자에게는 오히려 의심스러

운 것으로 비친다”(리만 89)는 점에서 출리는 “그가 피콜라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녀를 강간하는 것뿐”(Sharma 75)이라는 점은 그가 심신의 상실과 자아 상실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런 “자아 상실에 이르게까지 하는”(Baum 4) 출리의 스트레스성 알코올 중독은 그의 통찰력의 결여와 진행성 기억 상실 증세를 동반하고 있어 그가 코르사코프 증후군을 앓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불러온다.

폴린 또한 자신의 딸인 피콜라를 보호하지 못하고 상상 속의 자아를 자체 생산해내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불안한 인물이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부모는 성장기에 있는 그녀에게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어린 시절부터 폴린은 결핍 속에서 성장한다. 특히 그녀의 삶에서 그녀가 가진 저는 발은 “아킬레스건, 결핍, 약점, 예측의 징후”(Page 41)가 된다. 게다가 이러한 폴린의 마음의 근간에는 또 다른 상처가 하나 자리 잡고 있다. 흡사 말과 같은 동물이 그러하듯 그녀도 아픔을 못 느끼고 분만할 수 있는 여자라고 규정하는 백인 의사의 지결임에 그녀는 출산 당시 이 일은 매우 힘든 것으로 배변 운동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야 했다. 그리고 폴린의 이 일은 출산 전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그녀가 피콜라와 부모 자식으로 만나기도 이전에 미래의 피콜라의 전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폴린은 복부에 와서 애기를 할 고양이마저도 없다고 느끼면서도 피콜라가 태어났을 때 눈이 촉촉하고 머리가 예쁘긴 해도 ‘못생겼다’고 일관되게 생각한다.

이러한 부모로 인해 출생과 동시에 불안한 삶 속에 내던져진 피콜라는 흑인 소녀로서의 정상적인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신체 이형 장애’를 가지게 된다. 그녀의 이러한 장애는 그녀가 “미국인의 연인”(Naden and Blue 35)인 금발의 템플(Shirley Temple)과 순간적인 동화를 추구하고자 우유를 벌컥벌컥 마신 후 컵 안 쪽 바닥에 있는 그녀와 눈을 맞추는 행위나 열은 노란색 포장지에 금발에다 푸른 눈을 가진 백인 아이 제인(Mary Jane)의 사진이 있는 사탕을 동경하는데서 일부 드러난다. 이에 대해 픽은 피콜라가 “일종의 포장된 자위”(Fick 29)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언급한다.

이처럼 피콜라가 자신의 흑인으로서의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행위는 그녀가 학교생활이며 흑인 공동체 내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그녀

의 학급 친구인 필(Maureen Peel)은 피콜라의 삶에 굴욕감을 안기는 인물들 중 하나로 등장한다. 그녀는 “악인으로 묘사되는 백인을 상징하는 인물”(Rand 49)로 대놓고 피콜라의 외모를 비하하는 언어폭력이다 그녀의 가난을 부각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그녀의 추형 공포증을 가중시킨다. 모리슨은 그녀의 이름에서 필(peel)이라는 단어를 부각하여 이런 그녀의 성이 흑백을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피부, 껍질, 표면의 고색을 강조하기 위해 읽힐 수 있다”(Moses 130)는 점을 지적한다. 그녀는 멋진 장식의 서랍장이며 방과 후에는 가끔이긴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사먹을 만 한 돈을 가지고 있는 흑인으로 “버클이 달린 에나멜 구두, 알사탕 색깔의 스웨터, 하얀 토끼털로 장식된 갈색의 벨벳 코트와 여기에 어울리는 토시 같은 물건을 돋보이게 하는 복합적인 인물이다”(Moses 130). 이런 필의 모습과 태도는 피콜라로 하여금 단지 외모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가 인정하는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없는 그녀의 불품없음(ugliness)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그녀의 심리적인 분열(disintegration)을 가속화시킨다.

피콜라의 정신을 와해시키는 또 다른 인물로는 주니어(Junior)와 제랄딘(Geraldine)이 있다. 자식에게 시간을 쏟지 않고 방치하는 어머니인 중산층의 흑인 제랄딘의 아들인 주니어는 리만이 말하는 “황금 새장 어린이들”(60)에 해당한다. 주니어는 비뚤어진 인성을 가진 아이로 그의 발달 장애를 불러온 인물들은 집안에서 저널만 읽고 있는 존재감 없는 그의 아버지와 그에게 무관심한 어머니 제랄딘이다. 오로지 자신의 품위 유지에만 관심을 두는 제랄딘은 주니어의 흑인성을 지우기 위해 그의 머리 모양에 집착한다. 이 때문에 주니어의 곱슬머리는 두상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다 곱슬거리는 부분은 머릿속에 감추어져 있어 우스운 모양을 하고 있다.

제랄딘은 그녀의 아기 주니어에게 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 . . 제랄딘은 이 아이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어르지도 않았으며 혹은 발작적으로 키스는 해대면서도 아이의 응석은 받아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다른 모든 욕망은 충족된다는 것을 알았다.

Geraldine did not allow her baby, Junior, to cry. . . . Geraldine did not talk

to him, coo to him, or indulge him in kissing bouts, but she saw that every other desire was fulfilled. (86)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외로워진 주니어는 제랄딘이 없는 틈을 타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피콜라를 집에 초대해 제랄딘이 아끼는 고양이를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빙글빙글 돌려 창문에 던져 죽여 버리는 가학성을 드러낸다. 이처럼 주니어가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복수와 정의의 일환으로 보는 샤마(Parvani Rugnath Sharma)는 그의 행동을 “권력자에 대항하는 반란”(59)으로 본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순간 제랄딘이 집에 들어오고 주니어가 이 문제를 피콜라에게 뒤집어씌우는 데 있다. 이는 주니어의 분열적 인성의 심각한 행위화로 그의 자기중심성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콜라는 제랄딘에 의해 “더러운 어린 깡둥이년”(92)으로 규정되면서 정신적으로 크게 상처를 받는다.

소아 성애자이자 신비스러운 점쟁이인 처치(Soaphead Church)³는 피콜라를 돕는 사람으로 출현한다. 그는 늙은 남자로 약학, 법, 신학을 공부하였지만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회학과 물리치료 쪽을 시도했던 사람으로 자신의 명함에 새긴 글로써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의학 사기꾼의 전형”(Bennett 145)인 인물이다. “그는 관대한 정신으로 타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약한 타인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남을 돕는다”(Alexander 119)는 지적을 받듯 푸른 눈을 갈망하는 피콜라를 심리적으로 공격한다. 하지만 피콜라는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어 처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에 그가 자신의 집주인의 늙은 개 밥(Bob)을 죽이면 이틀 내에 푸른 눈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속임에 넘어간다. 이에 피콜라는 밥을 깨워 냄새가 고약한 독성이 밴 고기를 먹이는데 이 행위는 듀발(John Duvall)의 지적대로 “출리의 행동에 대한 일종의 메타포가 되어 이 개의 돌발적인 죽음이 상징적으로는 출리의 오르가즘을 재생”(245)시키며 이 작품에서 재앙의 씨앗이 된다. 듀발에 따르면 “모리슨의 처치라는 인물의 창조 없이는 피콜라의 비극적 대단원으로 독자들을 안내하는 것은 불가능 했을 수”(Wagner-Martin 재인용 17) 있기 때문이

³ 윌트콕(Elihue Micah Whitcomb)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인물은 “모리슨의 자메이카 출신인 전 남편에 다소 그 인물적 기반을 두고 있다”(Hockfield 38).

다. 그리고 수동성으로 일관된 삶을 산 피콜라가 이때 동물인 밥에게서 인생 최초의 승리감을 맛보는 모습은 그녀의 간접 외상화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

이처럼 처치는 푸른 눈을 칭하는 피콜라를 이용해 죄를 짓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히려 푸른 눈을 갈망하는 그녀의 바람이 성취될 것이라고만 믿고 있어 그녀의 심리적 분열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어린아이가 너무 자주, 너무 오래 혼자 버려져 있게 되면서 겪는 세계의 공허감이 나, 자극과 과잉되게 바뀌는 인상들, 혹은 너무나도 큰 강도의 자극은 어린아이에게 영향을 미쳐 분열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세계로 향하는 첫 단초에서 장애를 겪고, 자기 자신에게 되던져진다. (리만 60)

이처럼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마지막 처절한 시도가 실패한 이후 피콜라는 자아의 한계에 갇혀 미쳐버리고 내면과 외면을 철저히 혼동하는 인지 착각으로 인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질투해서 모두가 자신을 회피한다고 믿어버린다. 이는 불안 방어막이 사라진 현재 그녀의 병증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면서 “그녀가 원하는 것은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자 그냥 푸른 눈이 아닌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를 실현시켜 줄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가장 푸른 눈을 얻는 것”(Bennett 144)이기에 그녀가 결국 자기 수용에 실패했음을 증명한다. 동시에 피콜라가 본 작품에서 끊임없이 불안에 휩싸여 느끼는 인간적인 안정감의 부재는 그저 더 잘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인 가장 푸른 눈⁴을 갈망하는 그녀의 수동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도만 표출되었음이 증명된다.

이제 피콜라는 자신이 가장 푸른 눈을 가지게 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이전과는 달리 바라본다고 확신하게 된다. 이는 더 이상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행위로 전향한 피콜라의 ‘행위화’로서 이 정도의 단계에서라면 주체의 말하기 보다는 행위가 표면화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순간 피콜라의 주체는 더는 그녀라는 주체가 아니라 철저히 ‘그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거울 속의 자

⁴ 피콜라가 갈망하는 푸른 눈은 “그 눈이 아리안족(Aryan)의 이상적인 눈을 대표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푸른색은 아니다”(Pereira 233).

기 자신을 친구로 인식하는 피콜라는 이제 상상 속의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날개는 있지만 발은 땅에 붙어버린 새’로 비유되는 피콜라는 이렇게 미친 상태에서 쓰레기더미를 뒤지며 무엇인가를 찾아 헤맨다.

그녀가 입은 피해는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는 덩굴이 진암녹색을 띠는 나뉘를 오로지 자기만 들 수 있는 약한 북소리에 맞추어 고개를 흔들며 반복해서 길을 오르내리면서 보냈다. 팔꿈치는 굽히고, 손은 어깨에 얹고, 그녀는 날기 위해 영원히, 기괴할 정도로 허무하게 노력하는 데 열중한 새처럼 자기의 팔을 자꾸만 때렸다. 공기를 휘저으며, 자기로서는 다다를 수도 볼 수조차 없는, 그러나 마음의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는 창공에 넋을 잃은, 날개는 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새처럼.

The damage done was total. She spent her days, her tendril, sap-green days, walking up and down, up and down, her head jerking to the beat of a drummer so distant only she could hear. Elbows bent, hands on shoulders, she flailed her arms like a bird in an eternal, grotesquely futile effort to fly. Beating the air, a winged but grounded bird, intent on the blue void it could not reach—could not even see—but which filled the valleys of the mind. (204)

이로써 결국 이 작품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제명(epigraph)인 ‘그들은 행복할 게임을 할 것이다(THEYWILLPLAYAGOODGAME)’는 피콜라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음을 보여주며 그녀의 내부에서 울리는 목소리가 환상 속의 친구임을 알리고 있다. “환상은 주체가 자신에게 일관성을 제공해 주는 시나리오, 이야기를 만들어 결여를 덮는 방법”(살레츨 53)이기 때문에 “몸시도 끄적이지 변할 수 없는 흑인성”(Baum 11)으로 인해 피콜라가 선택한 최선의 몸짓인 것이다. 이에 페레이라(Malin Walther Pereira)는 결국 불안을 억제하는 일관적 대타자인 푸른 눈과 같은 “미에 대한 기호 체계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233)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처절한 현실 도피에도 불구하고 피콜라는 현실과 환상이라는 두 개의 갈라진 세계에서 버려진 몸으로 남는다. “불안은 사람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살레츨 40)이므로 정신적으로 마비된 피콜라가 끝내 자아의 한계 확장을 이루지 못한 이러한 마지막 모습은 “모리슨의 작품에 나오는 모든 유령보다 훨씬 더 유령 같은 모습”(Bennett 144)으로 시종일관 독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III. 욕망 이야기

이 작품에서는 백인 가치 기준의 욕망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인물들과 타인을 배려하며 인간다운 욕망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먼저 폴린은 철저히 자아를 우선시하는 욕망을 가지고서 백인 여성들이 소유한 멋진 모습을 모방한다. 백인의 가치를 따르는 삶만이 자신을 충족시켜줄 것이라 믿는 폴린은 백인이 소유한 것을 자신의 스타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과의 동질감을 느끼고자 노력한다. 가족이나 주변과의 관계가 아닌 백인들의 상품에 갖는 그녀의 ‘감정적인 관계’는 그녀를 세속화시킨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집에 있는 아연 욕조를 피셔(Fisher)가의 도자기 욕조와 비교하기도 하고 뻗뻗하고 칙칙한 타월은 폭신한 흰 타월과 비교하며 백인 소유의 물건을 욕망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녀는 자신의 순수함과 힘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신성하고 거룩한 존재를 만날 수 있는 교회 활동에 몰입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인간의 욕망은 영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폴린은 자신의 잃어버린 존재성을 회복하고자 종교에 심취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폴린에게는 예술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이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학교에 다닌 4년간의 세월 속에서 드러난다. 그녀는 언어에 매료된단는지 물감과 크레파스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오레일리(Andrea O'reilly)는 “그녀가 시에 대한 감수성과 예술가의 눈을 가지고 있다”(50)고 언급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피셔가의 주방을 “자신의 예술적 장소”(O'reilly 51)로 인식한 탓에 백인 가정의 귀속감에서 오는 위안을 받으며 하인으로서의 삶에 만족감을 느낀다. 그래서 딸 피콜라가 자신의 예술 왕국을 망치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용서치 않는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 종교나 백인 가정은 천국 그 자체로 “천국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인 온전한 삶을 표현하는 말”(성정모 179)이기에 폴린은 흑인의 삶에 침윤된 욕망을 자신만의 천국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욕망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폴린은 또 주변 흑인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자신이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인식한다. 백인 가정에서 일하는 그녀가 상점에라도 출현하면 주인이며 다른 여성들이 그녀를 우러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그녀가 어느 날 드림랜드 극장에서 백인 여성미의 아이콘인 할로우(Jean

Harlow)처럼 머리 모양을 멋스럽게 하고서 막대 사탕을 깨물었을 때 그녀의 씹은 앞니가 깨짐으로써 그녀의 욕망이 일시적인 것이자 환상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주면서 폴린이 백인과 대중매체의 욕망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런 폴린에게는 오로지 왜곡된 감정이 증폭되어 피콜라를 향하는 신경증적 증오와 욕망의 일원화 현상만이 나타나고 있다.

남부 흑인 문화를 구현하는 인물인 지미를 둘러싸고 있는 흑인 마을 공동체의 욕망도 자신들에만 집중된 욕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미의 병을 진단한 사람은 엠디어라는 인물로 그녀는 마을의 유능한 산파이자 결단력 있는 진찰 전문가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진찰이 옳든 그르든 무조건 따르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정도이다. 그렇기에 마을 여자들은 엠디어의 말에 따라 아픈 지미를 위해 그녀에게 뜨거운 국물을 챙겨주는 지극 정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엠디어의 말 한마디가 곧 이 흑인 공동체의 법이 되는 모습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며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집단 욕망이 투영된 행위이다. 그렇기에 지미의 병이 엠디어로부터 주목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미의 장례식 또한 마을 공동체의 이슈가 되고 출리 또한 지미의 손자라는 이유로 잠시나마 이 작품에서 주인공처럼 관심을 받는다. 하지만 이 또한 결국은 금세 잊히는 사건으로 흑인 마을 공동체라는 집단 욕망의 일원화 현상을 조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콜라에게 긍정적인 욕망을 선사하는 주변인들도 있다. 소설 초반부터 클라우디아는 쫓겨난 피콜라의 마음을 배려해 그녀를 감싸주려고 애쓰는 따뜻한 화자이자 백인 중심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출함으로써 위축된 흑인 사회의 무거운 분위기를 다소 중화시켜 주는 인물로 등장한다. 특히 그녀는 프리다(Frieda)가 헨리 씨(Mr. Henry)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때 그녀에게 “정말이야? 기분이 어땠어?”(99)라고 물음으로써 은근히 헨리 씨가 자신이 아닌 프리다를 선택한 것에 질투심을 보이며 독자들을 실소케 한다. 클라우디아의 집 하숙인인 헨리 씨는 어린 소녀들인 가르보(Greta Garbo)와 로저스(Ginger Rogers)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동네 창녀들을 몰래 집 안에 불러들이는 음흉한 인물로 그가 질투를 받을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에피소드는 다소 웃음을 유발하면서 클라우디아의 욕망이 타인을 해치는 정도의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클라우디아가 질투를 보이는 또 다른 인물로는 백인 소녀들과 흑인 소년들 모두가 경외감을 느끼는 인물인 필이다. 그녀는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임에도 하얀 우유를 맛있게 마시는 필의 모습에서 어떤지 질투를 느낀다. 그녀는 필에게서 움츠러드는 기분마저 느끼지만 필에게 지지 않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심하는 모습으로써 다시 한 번 독자들을 미소 짓게 한다. 이런 클라우디아는 필의 치부라 할 수 있는 송곳니와 육손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마치 자신이 승리를 거둔 것 마냥 기뻐한다. 이처럼 자신만의 소신을 가진 클라우디아는 이 작품에서 시종 정서적인 혼돈을 겪는 피콜라의 삶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쾌한 욕망을 선사한다.⁵

클라우디아의 어머니인 맥티어 부인(Mrs. MacTeer)의 건강한 욕망은 딸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성껏 돌보는 데서 유독 도드라진다. 특히 모리슨이 “손은 돌봄과 관심을 의미한다”(O'reilly 121)고 언급한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손을 통해 자녀를 잘 돌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맥티어 부인은 “모리슨의 황무지에서 육아와 보살핌의 모델이 된다”(Harris 41).

그녀의 손은 크고 거칠어서 그녀가 내 가슴에 빅스 연고를 문지르면 나는 아파서 몸부림을 친다. 그녀는 한 번에 두 손가락으로 내가 기절할 때까지 내 가슴을 마사지해 준다. 내가 뒤집어지며 비명을 지르려고 할 때, 그녀는 검지에 약간 연고를 떼서 내 입에 넣고는 그것을 삼키라고 말한다.

Her hands are large and rough, and when she rubs the Vicks salve on my chest, I am rigid with pain. She takes two fingers' full of it at a time, and massages my chest until I am faint. Just when I think I will tip over into a scream, she scoops out a little of the salve on her forefingers and puts it in my mouth, telling me to swallow. (11)

이밖에도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가장 배제된 사람들인 세 창녀들 또한 피콜라의 비극적 사건의 충격을 다소 완화시켜주는 욕망을

⁵ 클라우디아의 욕망은 건강한 것으로 이러한 건강한 욕망은 1942년 여름에 그녀와 프리다가 씨앗을 심는 행위에서 더욱 돋보이며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피콜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들의 희망에 대한 출구를 제공한다”(Buchanan 184).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녀들은 종교를 거부하는 인물들로 꽤나 진한 화장을 하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녀들은 모두 “술도 안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욕도 하지 않는”(82) 확실한 자기 주관을 가진 인물들이다. 그래서 알렉산더(Allen Alexander)는 “그녀들이야말로 창녀 옷을 입은 창녀 그 이상의 존재로는 행동하지 않는다”(121)는 점에 주목한다. 게다가 그녀들은 사회의 가장 저급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우월한 인간미를 보여준다. 적어도 “이 여인네들은 피콜라를 경멸하지 않았다”(51)는 대목처럼 그녀들은 피콜라가 알아들으면 안 되는 말은 철저히 삼가하여 어린 피콜라를 배려하는 성숙함을 보인다. “진정한 카니발 웃음”(Softing 88)을 선사하는 폴란드(Poland)는 블루스를 즐겨 부르며 가장 블루스적인 것을 구현함으로써 흑인이자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유지한다. 차이나(China)는 보통의 흑인 여자들이 백인 여배우의 머리 모양을 동경하는 것과는 달리 여러 스타일의 머리 모양을 노련하게 창조해내며 자신다움을 유지한다.

그녀들은 디시피치 헤어칼라로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똑바로 펴고 옆으로 가르마를 탄다. 밤엔 그녀들 모두가 갈색가방에서 꺼낸 종이 속에 머리칼을 끼어 크립 피로 말아 올리고 머리에 예쁜 무늬의 스카프를 동여매고 나서 아주 잠정하게 복부에다 손을 포개 올려놓은 채 잠을 잔다.

They straighten their hair with Dixie Peach, and part it on the side. At night they curl it in paper from brown bags, tie a print scarf around their heads, and sleep with hands folded across their stomachs. (82)

마리(Miss Marie)라 불리는 마지노 라인(Maginot Line)은 양말 따위가 없어도 이 집에 그 물건을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는가보다고 말하며 유쾌하게 넘어가고 어머니에게서 훈육 받았으며 욕 대신 말끝에 ‘워, 워, 주여’를 붙이며 이 작품의 무거운 분위기 완화에 다소 기여한다. 이 세 명의 여인네들은 자신들의 삶을 비판하지 않고 적어도 “흑인, 백인, 푸에르토리코인, 멕시코인, 유태인, 폴란드인, 그리고 그 어떤 인종이든 모두 불충분한 존재이자 연약한 존재”(56)로 만들 정도의 주관을 가지고 있어 암울한 피콜라의 삶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에 드러나는 주요 인물들의 욕망은 흑인들의 삶에 침윤되어 이들의 삶을 일원화시키는 종속적인 욕망과 주어진 삶 자체를 욕심 없이 충실히 살아가는 자율적이고 건강한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모리슨이 백인 중심 사회에서 흑인들의 욕망의 양면성을 조명하면서도 그들의 긍정적인 욕망의 영향을 통해 이 작품이 가진 가능성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내며 주체적인 흑인성이 투영된 욕망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자 함이다.

IV. 나가며

이 작품의 시작은 성인이 된 클라우디아가 과거를 회상하며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녀의 “이야기꾼으로서의 카타르시스 넘치는 역할”(Moses 126)이 돋보인다. 이는 “모리슨의 전 소설이 이 소설 속 강간 장면과 피콜라의 정신병이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Baum 17)임에 비추어 볼 때 독자들이 이 작품의 충격적인 내용을 조우하기에 앞서 그들이 “참여자가 되어”(David 37) 덩덤히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되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의 흑인들의 깊은 애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모리슨의 설정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피콜라에 대한 출리의 강간은 “인종주의, 노예제, 가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폐단에 대해 말하는 행위”(Dittmar 70)이기에 이 작품에는 모리슨의 다양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뷰캐넌(Jeffrey M. Buchanan)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내재화되어 타인들에게까지 투영되는 자기혐오와 징벌과 자기 증오를 생산해내는 사회 체계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하고 있다”(180). 실제로 이 작품에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들의 아들들을 거부하고 어머니들은 그들의 딸들을 거부하며 신은 푸른 눈을 갖게 해달라는 공동체의 의식이 깃든 기도자를 거부한다(Dittmar 70). 그렇기에 이 작품 속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불안과 장애를 보이는데가 하면 자신만의 욕망 속에서 분투하기도 한다. 특히 주인공인 피콜라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어린 식물에 해당하는 완벽한 예시”(Gravett 89)로 부모와 사회에서 거부당하는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누빔점이 되어줄 ‘가장 푸른 눈’에 집착하며 자신의 강한 예기불안과 함께 극단으로 치닫는 삶을 보여준다.

하지만 모리슨의 인물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이 작품 속에서 불모지의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의 존재가 되고자 노력한다. 출리의 알코올 중독, 폴린의 공격적인 성향 및 왜곡된 욕망의 분출, 피콜라의 푸른 눈에의 갈망은 모두 그들이 불합리한 백인 우위의 사회에서 기울여야만 하는 노력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증명한다. 특히 피콜라는 올바른 판단이 부재하는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탓에 일찍부터 “하나의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한”(Miner 181) 채 자신의 심리적 안녕을 얻을 수 있는 요소⁶ 중 오로지 푸른 눈을 얻겠다는 목적의식 외에는 어느 것 하나도 성취할 수 없어 완벽한 불능 상태에 이르고 만다.

피콜라의 비극으로 인해 “이 세상을 암살범으로까지 바라보는 프리다”(Baum 17)의 시선과 “내가 씨앗을 너무 깊게 심지 않았었다는 것, 그것은 흙과 땅과 우리 마을의 잘못이었다”(258)고 고백하는 클라우디아의 마지막 말의 울림은 피콜라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현실과 인간 개개인의 불합리와 이기주의가 갖든 공동체 정신의 부재를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동안 클라우디아가 피콜라의 목소리를 대신해 준 것에 주목한 맘그렌(Carl D. Malmgren)은 그녀가 “피콜라에 대한 배신을 상쇄하고자 그녀의 이야기 전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155)고 지적한다. 결국 그래벳의 지적대로 모리슨도 “이웃들 일깨우기”(89)를 하며 이 작품을 통해 모리슨과 클라우디아 그리고 독자들까지도 모두 ‘가장 슬픈 눈’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는 모리슨이 의도한 외상성 역전으로 와그너 마틴(Linda Wagner-Martin) 또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모두가 이 비극에 대해 유죄인 것이다”(22)고 덧붙인다.

이 작품에서 마지노 라인이나 차이나와 같은 인물들은 그들의 몸을 포기하더라도 먹을 것을 구하고 집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클라우디아 또한 주변과의 수평적인 비교에 머무르며 주체적인 삶을 살지만 피콜라

⁶ 심리학자인 리프(Carol D. Ryff)에 따르면 “심리적 안녕에는 환경에의 효율적인 통제,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자율성, 개인적인 성장감, 인생의 목적의식, 자기수용과 같은 여섯 가지 요소가 있다”(99).

는 “그녀가 아름다워질 수 없는 세상에서 도피하는 그녀만의 유일한 방식”(Hockfield 37)인 백인 사회의 개인화 요구의 뒷에 빠져 결국 정신병자가 되어 버린다. 이런 “피콜라의 정신이상은 흑인 사회의 정체성과 강인함을 위협하는 문화적 정신이상”(Pereira 229)으로 인간의 위계적 욕구를 와해시키는 음울한 상황을 불러온다. 하지만 피콜라를 통해 “희생, 죄, 얻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한 이 작품의 지속적인 논의는 삶의 실질적인 목적과 보상이 따르지 않는 무엇인가를 통해 성취하려는 투쟁이라는 커다란 이상을 강조한다”(Hockfield 41).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리스는 어떻게든 흑인들을 주체로 옮겨 그들의 존재를 의미화 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피콜라는 페레이라의 언급처럼 “가장 푸른 나”(233)가 되어 독자들의 기억에 현존하는 주체가 된다. 이로써 그녀는 백인 중심의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의 주체적인 흑인성과 그들이 갖는 고유의 아름다움이 갖는 강한 메시지와 동력을 증명해 보인다. 결국 이 작품은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무엇을 바라보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요청”(Fick 30)함으로써 현대 우리 사회가 반추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까지 생각하게 한다.

Works Cited

- Alexander, Allen. “The Fourth Face: The Image of God in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Bloom’s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Ed. Harold Bloom. New York: Bloom’s Literary Criticism, 2007. 111-24. Print. Abbreviated as *BMCI*.
- Bakerman, Susan. “The Seams Can’t Show: An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Black American Literature Forum* 12 (1978): 56-60. Print.
- Baum, Rosalie Murphy. “Alcoholism and Family Abuse in *Maggie* and *The Bluest Eye*.” *BMCI*. 3-18. Print.
- Bennett, Juda. *Toni Morrison and the Queer Pleasure of Ghosts*. New York: SUNY P, 2014. Print.
- Bloom, Harold. “Introduction.” *BMCI*. 1-2. Print.
- Buchanan, Jeffrey M. “A Productive and Fructifying Pain.” *BMCI*. 179-91. Print.

- David, Ron. *Toni Morrison for Beginners*. Danbury, CT: For Beginners, 2016. Print.
- Dittmar, Linda. "Will the Circle be Unbroken?: The Politics of Form in *The Bluest Eye*." *BMCI*. 67-86. Print.
- Duvall, John N. *The Identifying Fictions of Toni Morrison: Modernist Authenticity and Postmodern Blackness*. New York: Palgrave, 2010. Print.
- Elias, Silvia. *The Harlem Renaissance. A Critical Study of 'The Bluest Eye' by Toni Morrison*. San Francisco: Grin Publishing, 2013. Print.
- Fick, Thomas H. "Toni Morrison's Allegory of the Cave: Movies, Consumption, and Platonic Realism in *The Bluest Eye*." *BMCI*. 19-33. Print.
- Gravett, Sharon L.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An Inverted Walden?" *BMCI*. 87-96. Print.
- Harris, Trudier. *Fiction and Folklore: The Novels of Toni Morrison*. Knoxville: U of Tennessee P, 1991. Print.
- _____. "Reconnecting Fragments: Afro-American Folk Tradition in *The Bluest Eye*."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 Ed. Nellie McKay. Boston: G.K. Hall, 1988. 68-76. Print.
- Hockfield, Victoria. "The Bluest Eye." *The Most Frequently Challenged Books, Vol. 5, Including The Handmaid's Tale, The Bluest Eye, To Kill a Mockingbird and More*. Ed. Victoria Hockfield. Las Vegas: Webster's Digital Services, 2011. 36-50. Print.
- Malmgren, Carl D. "Texts, Primers, and Voices in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BMCI*. 145-58. Print.
- Miner, Madonne. "Lady No Longer Sings the Blues: Rape, Madness, and Silence in *The Bluest Eye*." *Conjuring: Black Women, Fiction, and Literary Tradition*. Eds. Marjorie Pryse and Hortense J. Spillers. Bloomington: Indiana UP, 1985. 176-91. Print.
- Morrison, Toni. *The Bluest Eye*. New York: A Plume Book, 1994. Print.
- Moses, Cat. "The Blues Aesthetic in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BMCI*. 125-44. Print.
- Naden, Corinne J. and Blue, Rose. *Toni Morrison*. Chicago, Illinois: Raintree, 2006. Print.
- O'Reilly, Andrea. *Toni Morrison and Motherhood: A Politics of the Heart*. New York: State U of New York P, 2004. Print.
- Page, Philip. *Dangerous Freedom: Fusion and Fragmentation in Toni Morrison's Novels*. Jackson: UP of Mississippi, 1995. Print.
- Pereira, Malin Walther. "Periodizing Toni Morrison's Work from *The Bluest Eye* to *Jazz*: The Importance of *Tar Baby*." *Critical Insights: Toni Morrison*. Eds. Solomon O. Lyasere and Marla W. Lyasere. Pasadena, California: Salem P, 2010. 224-39. Print.
- Rand, Naomi R. *Studies on Themes and Motifs in Literature*. New York: Peter Lang, 1999. Print.
- Rice, Herbert William. *Toni Morrison and the American Tradition*. New York: Peter Lang, 1996. Print.

- Riemann, Fritz. *Anxiety*. Trans. Youngae Jeon. Seoul: Moonye Books, 2007. Print.
 [리만, 프리츠. 『불안의 심리』. 전영애 옮김. 서울: 문예 출판사, 2007.]
- Ryff, Carol 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Current Direction in Psychological Science* 4.4 (1995): 99-104. Print.
- Salecl, Renata. *On Anxiety*. Trans. Gwangho Park. Seoul: Humanitas, 2015. Print.
 [살레츨, 레나타. 『불안들』. 박광호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2015.]
- Sharma, Parvani Rugnat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luest Eye and The Color Purple*. Patan, North Gujarat: Hemchandracharya International Publishing House, 2015. Print.
- Softing, Inger-Anne. “Carnival and Black American Music as Counterculture in Toni Morrison’s *The Bluest Eye*.” *American Studies in Scandinavia* 27.2 (1995): 81-102. Print.
- Sung, Jeong-mo. *Desire Society*. Trans. Insik Hong. Seoul: Hanibook, 2016. Print.
 [성정모. 『욕망사회』. 홍인식 옮김. 서울: 한겨레출판, 2016.]
- Wagner-Martin, Linda. *Toni Morrison and the Maternal: From The Bluest Eye to Home*. New York: Peter Lang, 2014. Print.

변효정 (대진대학교/교수)

주소: (11159) 경기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이메일: byunglish@gmail.com

논문접수일: 2018. 12. 29. / 심사완료일: 2019. 01. 30. / 게재확정일: 2019. 02. 07.